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8. 20.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 3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도자

성경 봉독

----- 창세기 24장 42~48절 -----

다 같이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둥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둥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47. 내가 그에게 물기를 네가 뉘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말씀 나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인 도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들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 모르거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쉽게 습관화되어, 신앙의 활기가 사라져 식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에 무슨 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고 섬세하게 관여하시는지, 또 관여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여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때로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 깊고 섬세하게 인도하심으로써 리브가와 같은 훌륭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엘리에셀이 열심만으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리브가가 때마침 나와 있었고, 그 여인이 준비가 된 여인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느껴졌던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가정과 개인 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때로는 단순히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이와 같이 인자한 목자처럼 인도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장애물을 두셔서 방향을 바꾸도록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로 벌하셔서 하던 일을 중단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려는 여호수아를 공격에 실패하도록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밝혀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시아로 선교 길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간섭하셔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선회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이유 모를 고난과 역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가 병들고 죽는 것이 그의 구원에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를 단호히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분을 신뢰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때로는 버려 두시기조차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에게 해당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경우에도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이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버려진 것 같은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과 개인의 삶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인도해주신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2. 내가 원하던 길이 막혔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3.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때 무엇을 배웠나요?

1.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2.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3.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도록
4.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5.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섬세히 인도하시며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